2026. 3. 3 (화)

MFS와 이란 사이에서 정체된 금리

채권전략
Analyst 윤여삼
yeosam.yoon@meritz.co.kr

RA 김영준
zerojoonk@meritz.co.kr

현재 안전선호 기반 미국금리 추가 하락은 쉽지 않은 영역

2월 마지막 영업일 미국채10년 금리는 3.94%로 10월 이후 다시 4% 하회. 외형적 양호한 미국경제대비 일부 신용시장 위축을 대비한 글로벌 국채매수세 강화. 영국 모기지 업체 MFS의 파산 소식은 지난해 자동차 금융관련 사모대출 업계 파산 이후 신용위험이 높아졌다는 인식을 자극, 미국채 강세를 주도

정작 국내 휴일 중 발생한 이란-미국 전쟁(Epic Fury)의 미국채 안전선호 민감도는 2일 오후 3시 현재 미국채10년 2bp 상승, 3.96% 기록. 전쟁 리스크는 안전선호보다 유가 중심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 위험자산 조정에 따른 미국채 강세 기대는 제한적으로 대응하면서, 사태 해소과정 지켜볼 필요

통화정책 오해는 풀어낸 국내 채권시장, 추가 하락재료 점검하기

우리는 국내 시장금리 실제 금리인상이 없다면 50bp 가까운 채권금리 거품이 있다고 2월 중 발간 보고서를 통해 주장. 2월 금통위에서 수정경제전망이 올해 성장률과 물가가 0.1%p씩 상향된 2.0%와 2.2%로 상향되었음에도 내년 전망은 목표수준에서 균형을 찾으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논할 상황은 아님

7인 금통위원이 6개월 내 3개의 표를 행사하는 신(新) 포워드가이던스 동결이 16표, 인하 4표, 인상 1표로 긴축전환 가능성 미약. 일각에서는 금통위원 교체 등으로 매파성향이 강화될 위험성 거론. 그러나 부동산과 환율은 미시적 대책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현 성장과 물가경로가 인상을 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

Chart of the Week: 미국-이란 전쟁, 채권시장은 전쟁이 뚜렷한 강세 재료 아냐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현재 안전선호 기반 미국금리 추가 하락은 쉽지 않은 영역

- 2월 27일 미국채10년 3.94%까지 반락, 작년 10월 이후 다시 4% 하회. 우리는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채10년 4% 하회를 타진했으나, 예상보다 빠른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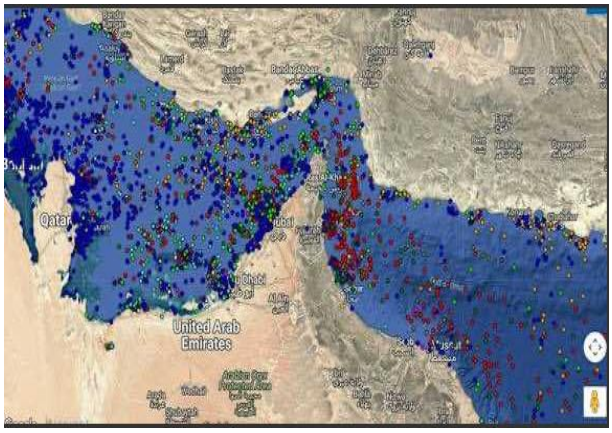
- 주말 내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란과 미국의 전쟁(Epic Fury)은 사태의 장기화 여부에 따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다를 것. 우리는 메인 시나리오상 3~4주 이내 사태가 해결, 브렌트유 기준 85~90달러/배럴 내외 100달러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망

- 과거 채권시장의 전쟁 민감도는 전쟁 자체의 안전자산 선호보다 전쟁 지역의 에너지(유가) 가격민감도가 핵심〈표지, 그림 1〉. 3월 2일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채10년 금리가 2bp가량 상승하는 것은 사태 장기화로 인한 유가상승이 인플레로 전이될 위험성까지 고려한 행보. 만일 트럼프 주장과 달리 1개월 이상 장기화 유가 100달러 초과 시 채권시장에도 긴장감 높일 재료

그림1 **채권시장은 전쟁 자체보다 전쟁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에 더 민감**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2월 28일 호르무즈 해협, 활발한 선박 활동 확인**



자료: Bloomberg Map

그림3 **3월 1일 해협 봉쇄 및 일부 선박 공격으로 움직임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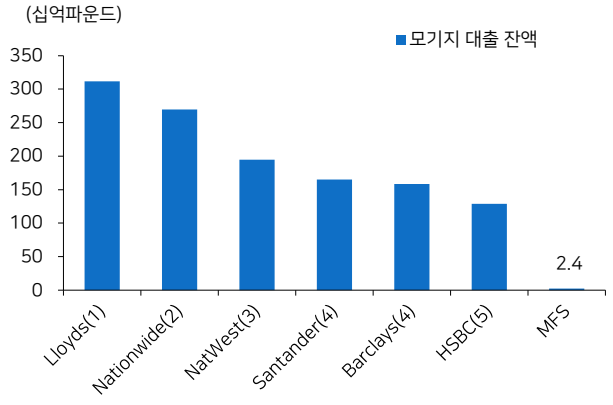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ap

- 주말 내내 이란의 신정부와 협상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밀당을 이어가는 미국 행보를 감안 2일 아시아 금융시장의 충격은 일본 증시 1.35%, 홍콩 항셍 2% 내외 조정. 미국 나스닥선물 1.5% 이상 조정에도 비트코인 1.5%대 약세 vs 금/은 가격은 2%대 강세로 적당한 위험회피 & 안전선호 수준에서 추가재료 수집 중

- 전쟁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지난 주말 미국채10년 3%대 진입의 핵심은 영국의 모기지 업체 MFS(Market Financial Solutions)의 파산신청. 미국보다 실질 주택가격 상승 및 고금리 충격으로 영국 모기지관련 업체들의 취약성 증대된 것으로 판단. 지난해 미국 자동차 서브프라임 융자 업체들 사모대출 파산과 유사한 이중 담보제공으로 신뢰성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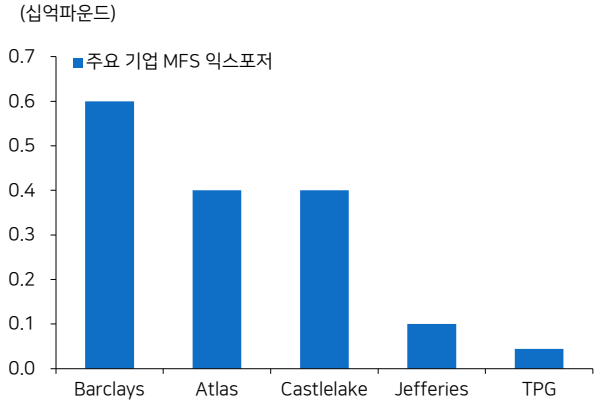
- MFS의 영국 모기지 업체 비중은 1.6조 파운드 규모에서 24억 파운드로 0.15% 정도〈그림 4〉에 그치나 영국 바클레이즈 및 미국 제프리스, 사모펀드 아폴로 등이 엮여 있어 전염 효과에 대한 우려 자극〈그림 5, 6〉. MFS 파산 위험으로 유럽 금융기관들의 CDS가 10bp 정도 올랐으나 절대레벨은 아직 낮은 편〈그림 7〉

그림4 MFS 영국 모기지 업체 중 마이너한 업체로 여겨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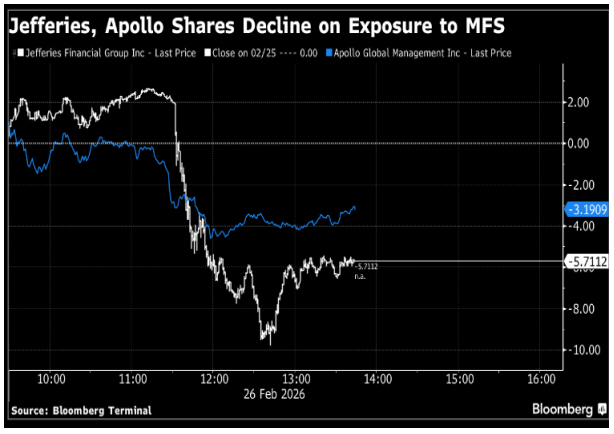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다수 금융기관이 연관된 MFS, 전염에 대한 우려 자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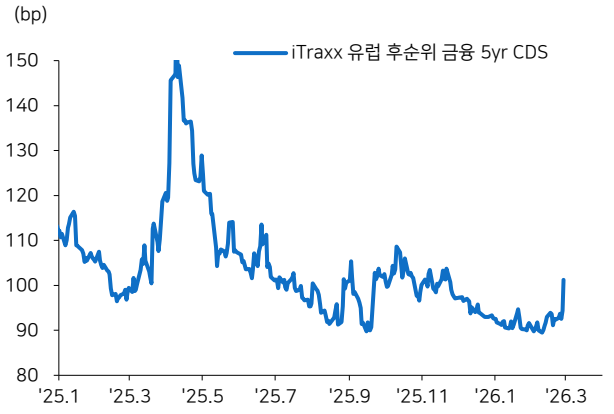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제프리스와 아폴로, 사모신용 관련 위험도 전이



자료: Bloomberg Economics

그림7 심각한 수준 아니나 유럽 금융기관 CDS 10b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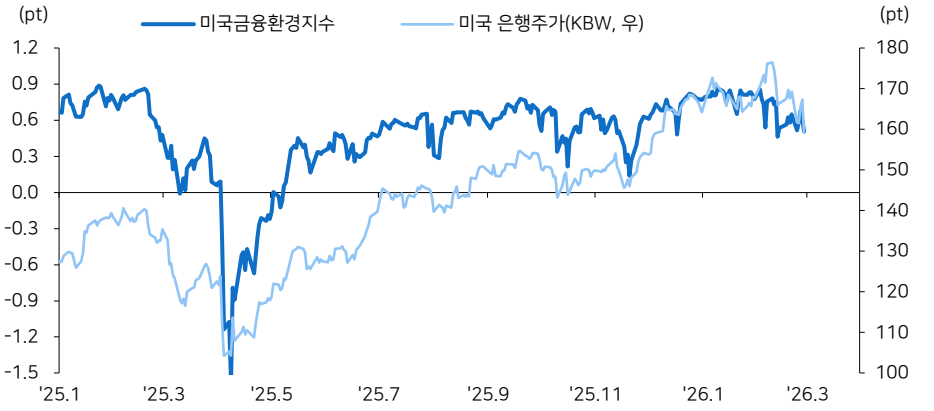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우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강조해왔지만,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신용(credit) 시장의 취약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인. 물론 이 부분 또한 양극화로 인해 제도권인 하이일드 마켓까지도 아직 풍부한 유동성으로 충격이 크지 않은 편〈그림 9〉. 역사적 평균 수준인 350bp 수준에도 못 미친 수준

- 27일 MFS 직접 익스포져가 큰 영국의 바클레이즈 주가 조정 4%보다 미국 주요 금융기관은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웰스파고 등이 5% 이상 더 큰 조정 기록. 미국 은행주 주가는 27일(금)에만 4.8% 넘게 하락을 기록하며 올해 초까지 강세를 이어온 부분을 되돌림〈그림 8〉

- 미국 증시가 올해 주요국 대비 약세를 기록하는 핵심은 재정정책이 건정성 이슈로 묶여 있는 사이 연준 역시 추가 인하에 소극적인 상황이 불편. 제도권 시장의 조달 이슈는 안정수준에 통제되는 반면, 사모시장을 중심으로 문제가 확산. 관련 가격지표의 약세는 지난해 자동차 금융 이후로 지속〈그림 10〉

그림8 미국 은행주가 5% 내외 하락에 영향, 그래도 금융환경은 아직 완화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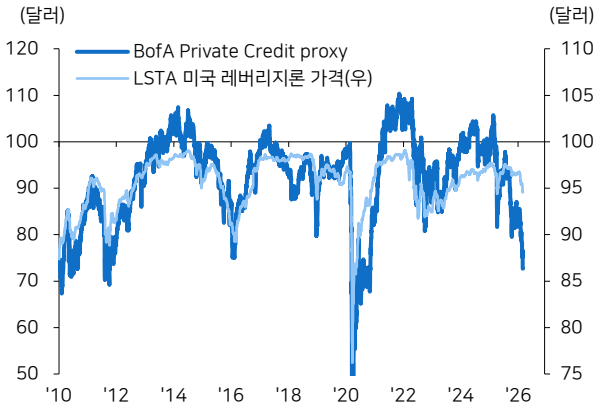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유럽보다 미국 하이일드 민감도 좀 더 높게 작용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미국 사모펀드 관련 이슈가 지난해 선제적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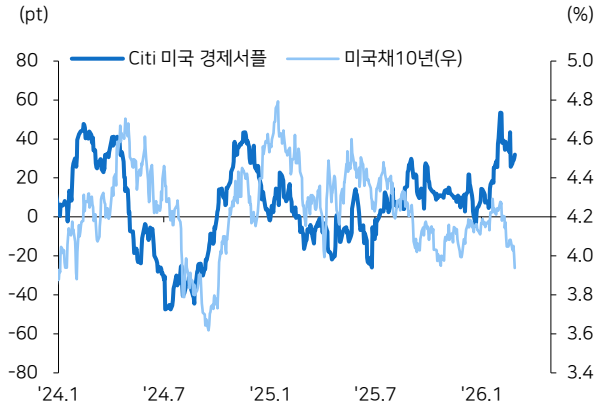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미국 서프라이즈 지수와 GDPNow와 같은 경기모멘텀 지표를 감안할 때 미국채 10년 금리가 3%대로 진입은 쉽지 않은 환경〈그림 11, 12〉. 연초 기대치보다는 최근 다소 식었다고 하나 미국 경제 기대치는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 미국 4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음에도 올해 1분기에도 3% 내외의 양호한 성장 기대.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국 고용관련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고, '고용 없는 성장'이 유발할 소비의 취약성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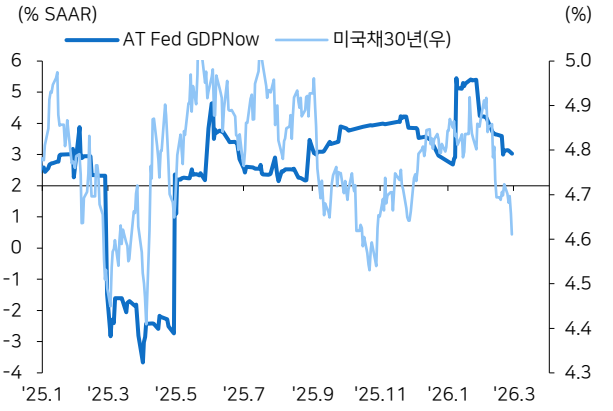
- 이번 주 발표될 1월 미국 소매판매 역시 12월에 이어 1월에도 mom -0.3%로 부진할 것이라는 기대 높음. 자동차 판매를 제외한 근원 소매판매 또한 0.2% 수준으로 미국 소비탄력 둔화를 확인할 것

그림11 미국 경기모멘텀은 아직 양호한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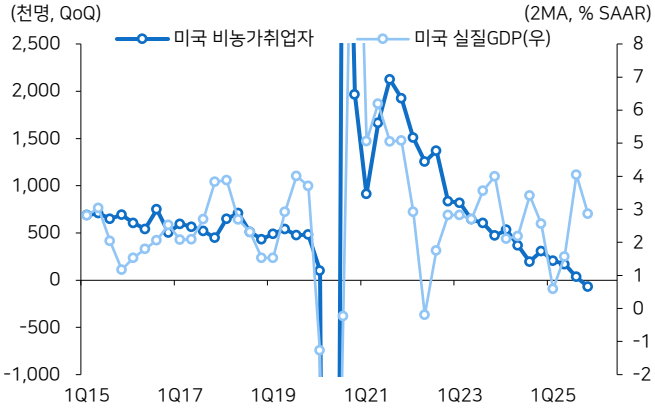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올해 1분기 성장률 역시 3%대 비교적 양호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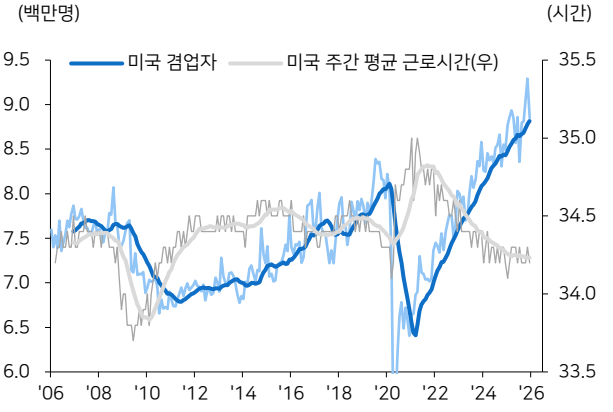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고용없는 성장, 미국 지속될 것으로 전망



자료: US BLS, US BE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높은 생산성과 일부 일자리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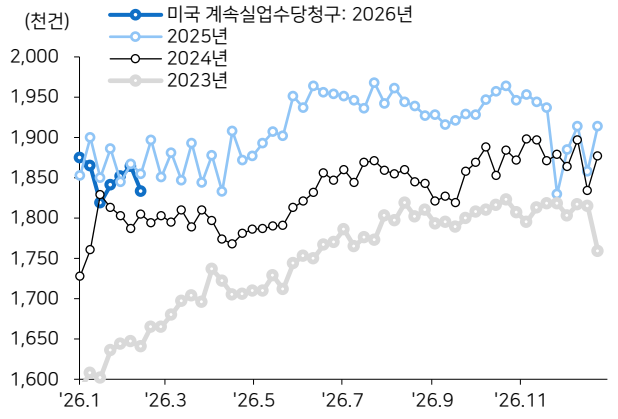
- 이번 주 6일(금) 정상적으로 발표되는 2월 고용지표의 경우 1월의 깜짝 서프라이즈 이후 다시 고용의 취약성이 확인될 수 있을지 주목. 블룸버그 컨센서스 2월 비농가취업자 증감은 6만명, 실업률은 4.3%로 무난한 숫자를 제시

- 일단 신규실업수당의 변동성대비 계속실업수당 청구건수는 더 악화되지 않아도 절대수준이 낮지 않음

- 미국 구인/실업비율에서 기업들이 더 이상 구인을 강하게 실시하지 않는 구조적 수요둔화는 확인〈그림 16〉. 다만 AI로 인한 생산성 측면의 대응으로 기업들의 수익은 증대될 수 있으나 가계 소득의 취약성 높아질 위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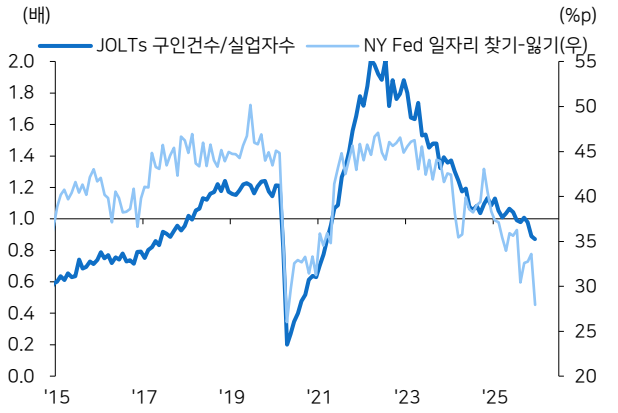
- 챌린저 그레이 해고의 반등 추세와 컨퍼런스보드의 일자리 취약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관성지표인 고용지표가 1월과 달리 예상을 하회할 가능성 주목

그림15 **미국고용 위축신호 강하지 않아도 개선도 쉽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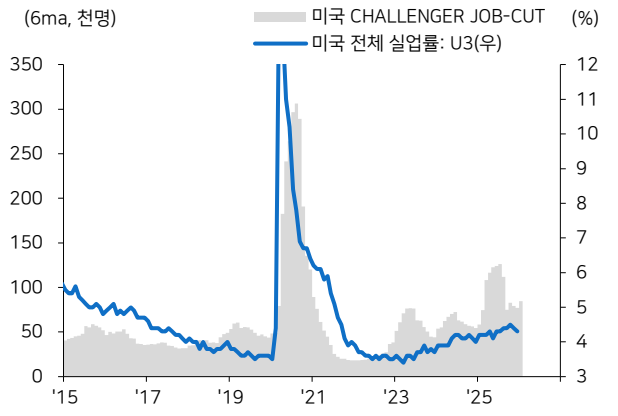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구조적 고용지표 위축 관련된 신호가 유력**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미국 해고데이터 이동평균 다시 증가세로 전환**



자료: Bloomberg,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소비심리 내에서 일자리 안정성 여전히 취약**

자료: US BLS, The Conference Boar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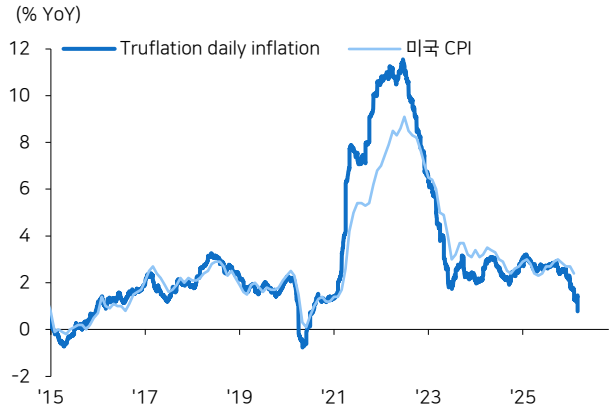
- 이외에도 이번 주 확인될 ISM 등도 지난 1월 숫자보다는 둔화될 것이라는 컨센서스 등을 고려할 때 최근 경기모멘텀과 어긋난 채권금리가 경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은 낮음

- 그럼에도 유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자극이 얼마나 증가될지 여부가 중요. 일간으로 집계되는 Truflation 데이터는 미국 물가가 아직 증가율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성장률 전망을 좇아 물가 전망은 안정흐름이 주춤〈그림 20〉

- 지난 주 막판 1월 PPI 결과가 mom 0.5%로 높은 수준을 기록, 일부 원자재 가격상승이 주도하는 인플레 재반등 위험을 간과할 수 없음. 주요 해상운임이 아직은 크게 민감하지 않고 있으나 이란 사태 장기화는 벌크뿐 아니라 컨테이너 운임까지 자극할 수 있어 전반적 물가상승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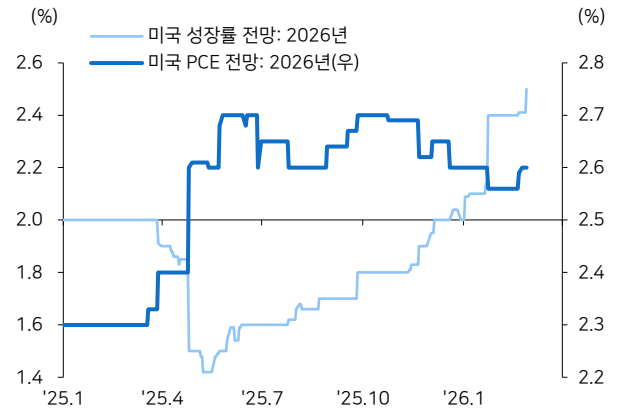
- 공급망 충격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BEI가 얼마나 따라갈지 여부가 관건〈그림 22〉. 25년 하반기보다 낮은 BEI가 재차 오르면, 채권시장 긴장 모드

그림19 미국 일간 물가데이터는 안정 기조 유지하고 있어



자료: Bloomberg,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개선되는 성장률을 좇아 물가도 소폭 반등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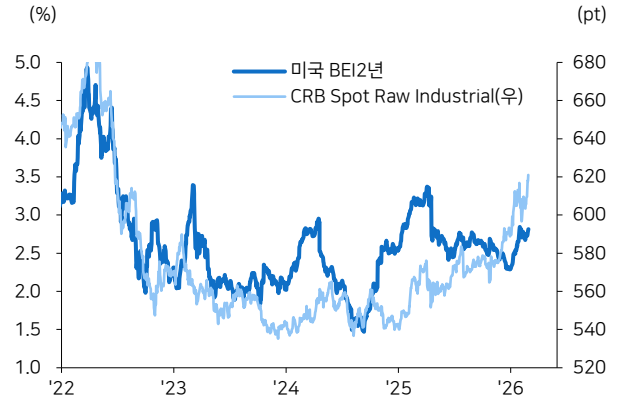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이란 전쟁의 핵심은 다시 기대인플레 자극할지 여부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원자재 가격 다시 반등, BEI가 얼마나 쫓아갈지 주목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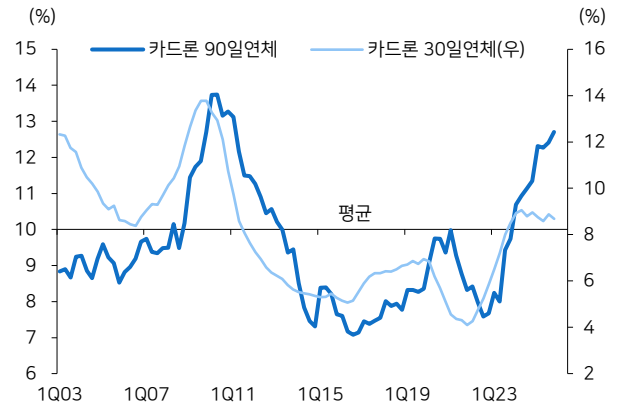
- 많은 재료들의 혼재 속에도 일부 안전자산 선호 및 미국 신용리스크 점검을 계기로 미국채10년이 3.9%대로 반락했으나 추가하락은 쉽지 않을 것

- 추가 미국채 금리하락의 조건은 1)이란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아 유가발 인플레 우려가 높지 않고, 2)높아진 일부 연체율이 추가 신용 리스크를 자극하는 상황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MFS는 2)번의 조건을 일부 지지한 편이나 1)번 전쟁 불확실성을 확인한 이후 미국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것을 기대

- 현재 연준 인사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매파성향 대비 시장금리 레벨은 낮아진 상황〈그림 25〉.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전쟁에도 통화정책 기대가 연내 2차례 이상 공격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1분기 3%대 안착을 위한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그림23 미국 신용위험, 추가 금리상승은 더 큰 재앙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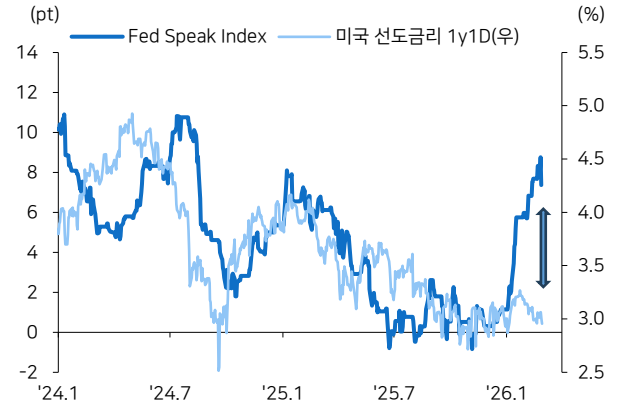


자료: NY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4 미국 유동성 조절 통해 부실 영역 연착륙 중요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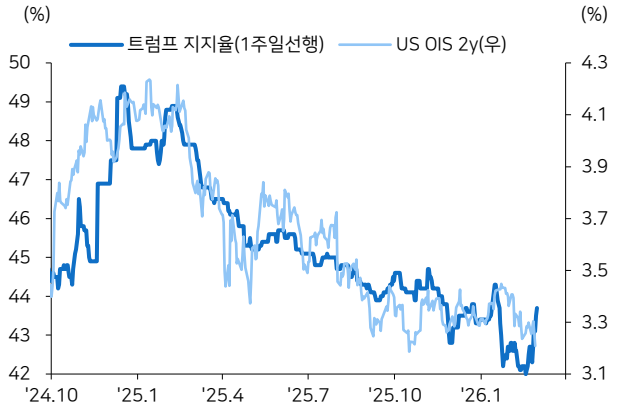
자료: NY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5 채권시장 안전선호 반영 반락, 연준 매파성향 무시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6 트럼프 낮은 지지율 반등을 위해 전쟁까지 불사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우리는 여전히 미국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낮게 보는 대신 인플레 부담을 덜어내는 시점에서 3.25%까지 연방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 이를 기반 미국채10년 3.8% 정도를 타겟으로 추가 안정 여지도 제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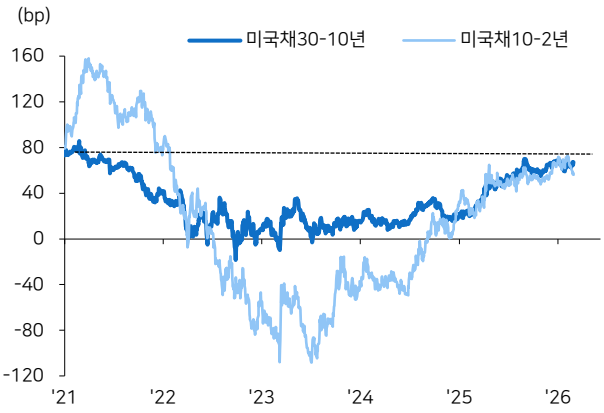
- 사실 3.8%가 의미 있는 타겟이라고 할 때 연방금리 3.25%를 하회할 수 있는 추가 재료가 없다면 현재 시장금리 하락을 추가매수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담. 그럼에도 양호한 미국경제로 금리하락이 어렵다는 시각에 변화를 줄 정도의 신용시장 점검 등이 부각된 것은 의미 있는 흐름

- 지난해 4% 중반에서 미국채10년 금리가 40bp가량 하락으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금리가 하락했던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의 경우 금리가 반등. 그럼에도 올해 미국금리 하락은 글로벌 안전자산의 대장으로 미국금리 위상이 아직은 유효하다는 인식 하에 주요국 금리 또한 반락했다는 점을 주목〈그림 29〉

그림27 미국채10년 기술적 주요 하단 돌파에도 추가하락 신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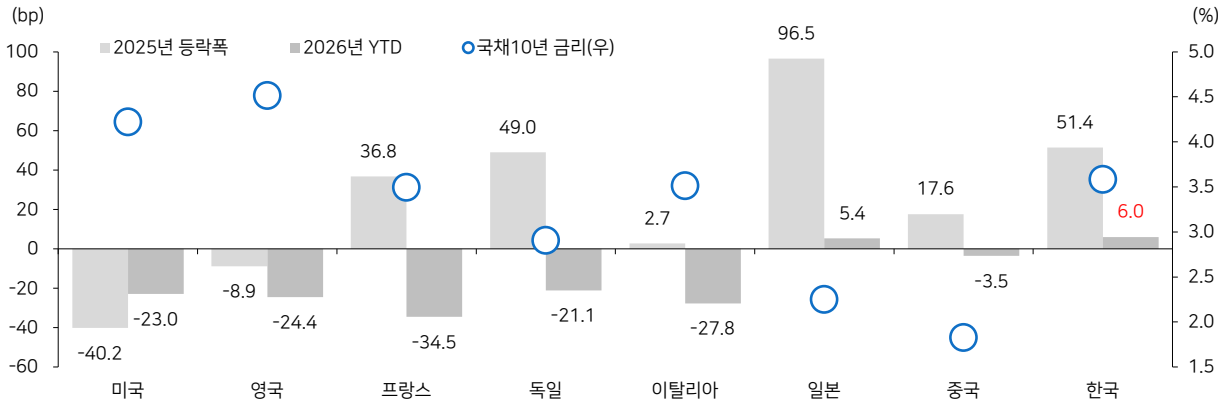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8 미국 커브는 플랫, 초장기 본격 하락이 확인될 필요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9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국채 하락 기조는 유지, 주요국 올해 미국금리 쫓아 그래도 레벨을 낮추는 모습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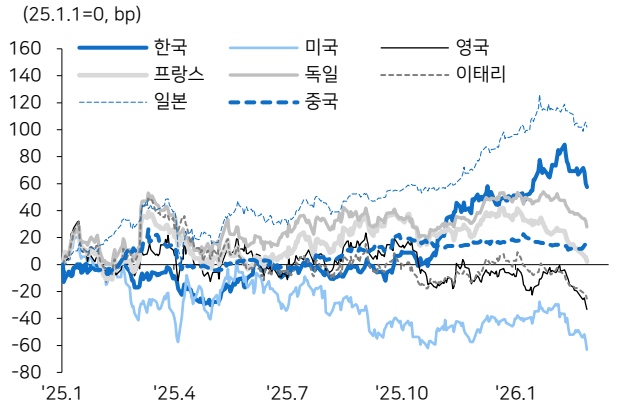
통화정책 오해는 풀어낸 국내 채권시장, 추가 하락재료 점검하기

- 연초 많은 오해 속에서도 미국금리 하락으로 주요국 금리가 반락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은 여전히 연초보다 금리가 높은 수준. 2월 중반까지 국고3년 3.3% 부근과 국고10년 3.7%대까지 반등했던 시장금리가 3.04%와 3.445%로 안정

- 그럼에도 한국 시장금리는 지난해 일본 다음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이 되었으며, 그나마 초장기금리는 재정건전성을 감안 독일보다는 덜 올랐다고 하나 최근 보험사들의 수요가 얕아지면서 10년과 역전이 해소되려는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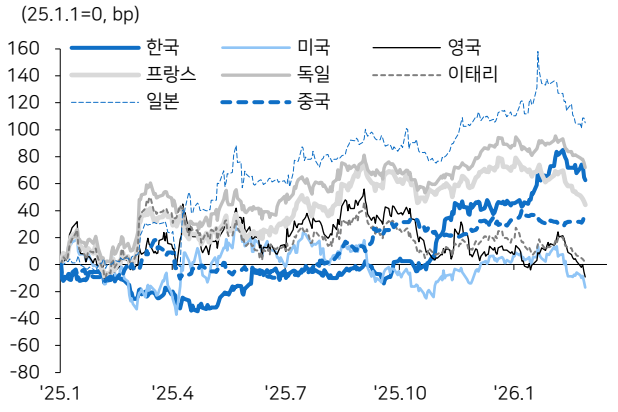
-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국내 시장금리 안정은 한은의 안정 대응이 효과. 설 명절 직전 한국 시장금리가 과도하게 높은 편이라는 구두개입 이후 2월 금통위 신규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을 통해 '금리인상'이라는 오해를 풀어내는데 노력

그림30 주요국 10년 금리추이: 한국, 일본 만큼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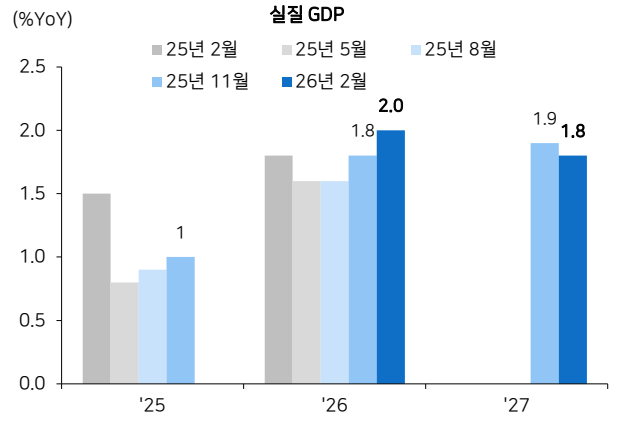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1 30년 초장기는 재정 건전성으로 10년보다 덜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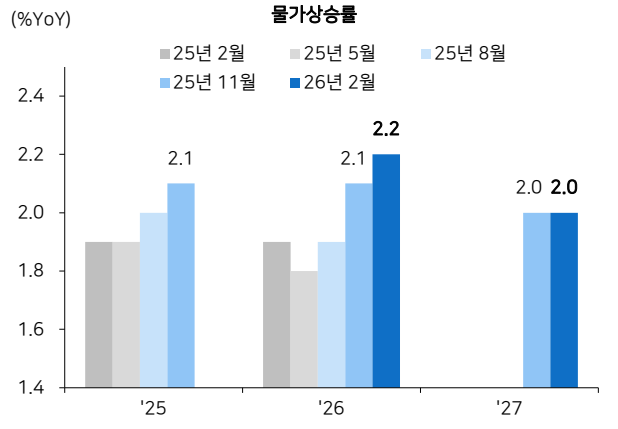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2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 상향대비 내년은 소폭 하락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3 물가도 올해 다소 부담, 그래도 목표 벗어나지 않아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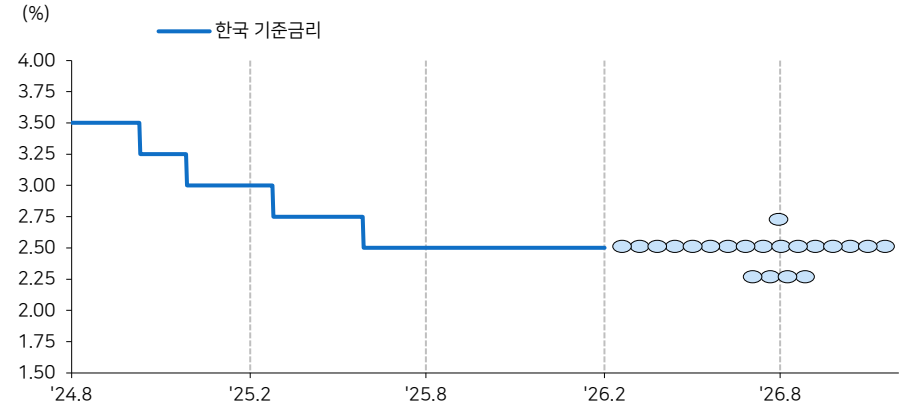
- 올해 성장률 전망은 기존 1.8% → 2.0%로 우리가 예상한 1.9%보다 높았고, 물가 역시 2.1% → 2.2%로 소폭 상향〈그림 32, 33〉. 그럼에도 내년 성장률은 0.1%p 낮추고, 물가는 목표수준인 2.0%로 제시

- 사실 우리는 현재 성장과 물가 수준만으로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인식은 과도하다고 판단. 22년 이후 5년 평균 성장이 이제 GDP갭 마이너스를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만 우려가 크지 않다면 아직 통화정책은 성장에 기여를 해야 하는 여건임

- 때문에 환율이 과도하게 수입물가 부담을 주거나 혹 전쟁리스크로 유가 민감도가 다시 높아지지 않는다면, 현 금통위원들이 제시하는 6개월 이내 동결 혹은 인하 의견이 지배적인 부분인 타당함〈그림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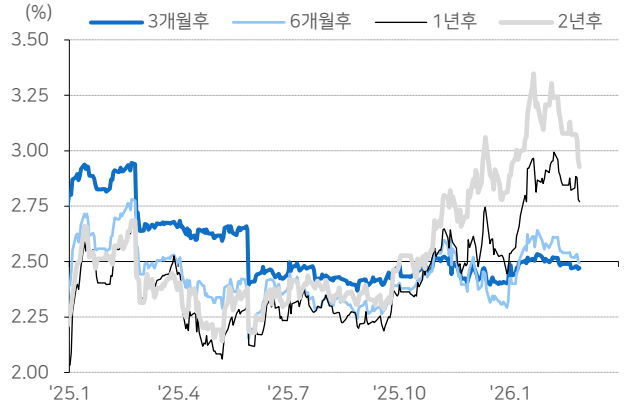
- 그럼에도 일부 매파적 해석은 현 완화의견을 제시하는 금통위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완화 기조에 대한 부담을 나타내는 시각 존재

그림34 **한은 New Forward Guidance: 아직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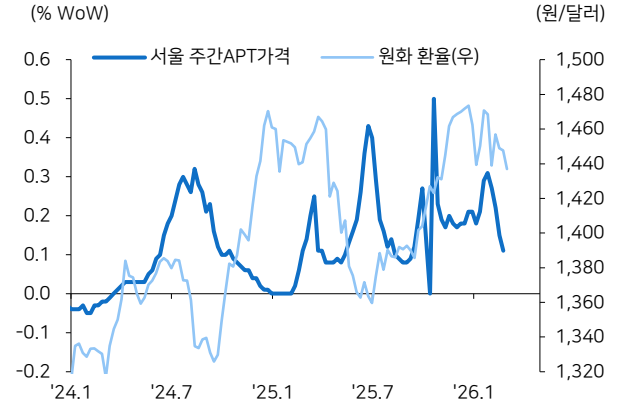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5 **과도한 금리인상 프라이싱의 일부 되돌림**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6 **서울 부동산 규제 vs 원화 환율 추가 안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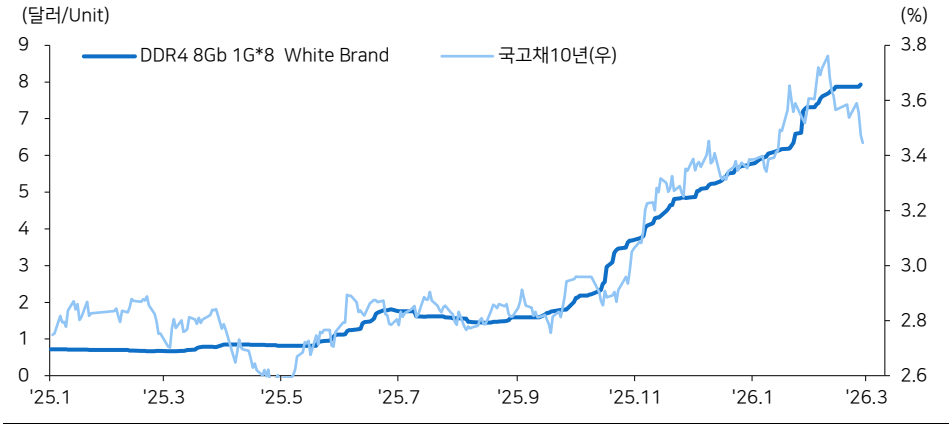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KRX,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그렇지만 신임 금통위원 혹은 한은 총재가 누가될 것인지는 가장 높은 불확실성의 영역임. 환율은 높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정부의 미시대책으로 안정될 조짐을 나타냄. 금융안정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정도는 아니나 인상도 고려할 상황은 아님

- 현재 성장률과 물가 전망 하에서 점도표는 향후에도 성장과 물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 우리는 성장률의 추가 상향보다는 물가가 2% 중반까지 오르지 않는다면 인상을 걱정하는 것은 앞서간 생각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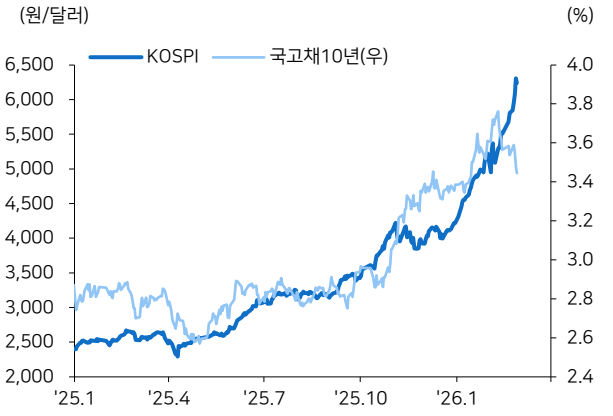
- 한은 역시 이번 성장률 전망에서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 수출 업황에 대해 상하방 불확실성이 공히 존재한다고 밝힘. 최근 미국 AI관련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고비용 문제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반도체가격 상승세가 현재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인식 존재〈그림 37〉. 반도체가 전년대비 160%넘게 증가하는 수출의 쏠림은 향후 코스피 추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담

그림37 반도체 가격상승 기울기 2월 중반부터 그래도 더 가팔라 지지는 않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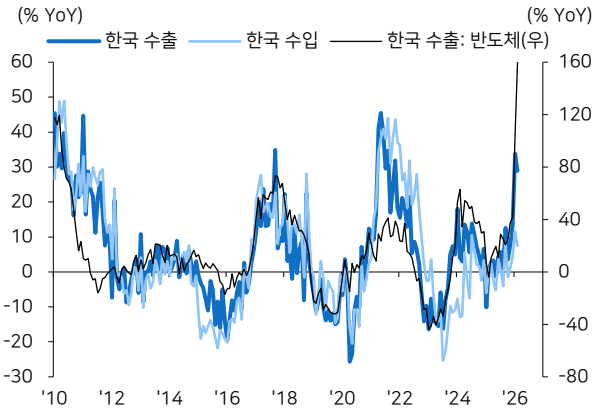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8 주가 상승에도 시장금리 반락하며 대내외 여건 점검



자료: KRX, 금융투자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9 반도체만으로 한국 경제 전반을 끌고 가기 쉽지 않아



자료: 관세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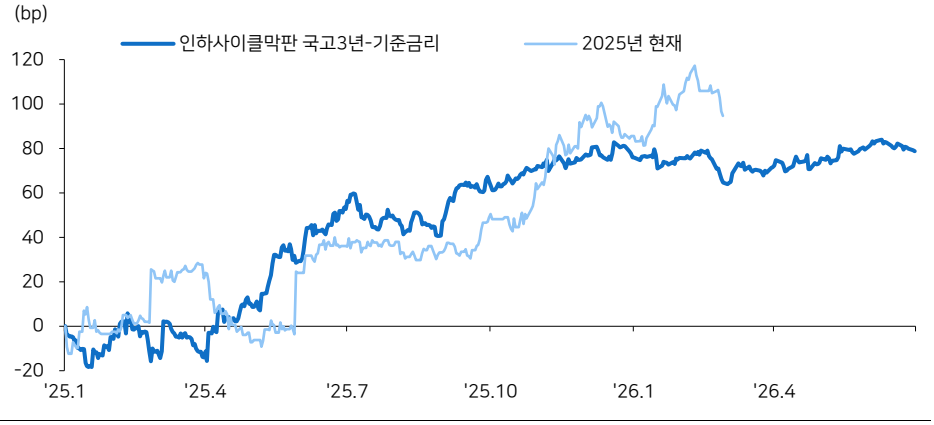
- 결국 예상보다 미국금리 주도로 빠르게 하락한 금리대비 국내는 통화정책에 대한 오해와 수급 부담으로 현재에도 과거 통화정책 전환기보다 시장금리 충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그림 40〉

- 최근 과도했던 오버슈팅이 20bp 이상 되돌려졌다고 하나 국내 시장금리 추가 안정 여지가 있다는 판단. 물론 미국금리가 단기간 하락이 제한되어 대외 모멘텀이 부족할 수 있고, 국내는 여전히 통화정책 중심으로 채권투자 우려가 높은 편

- 최근 보험사들은 개선된 KIC-s를 기반으로 채권수요를 줄이고 있어 30년과 10년 역전압력이 해소되고 있어 우리 또한 초장기 발행의 탄력적 축소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영역으로 진입〈그림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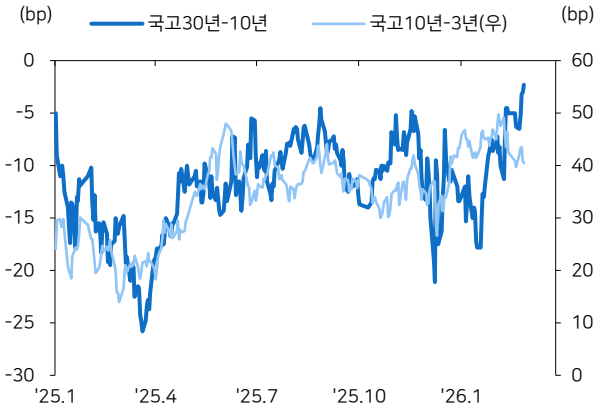
- 여기에 공급부담이 있다고 하나 공사채 중심으로 과도하게 확대된 크레딧 스프레드 역시 국고금리 안정을 기반으로 캐리 장세를 고려할 때 포지셔닝을 점차 고민해야 할 영역으로 판단〈그림 42〉

그림40 과거 통화완화 전환점 대비 오버했던 시장금리, 일부 돌아와도 아직도 오버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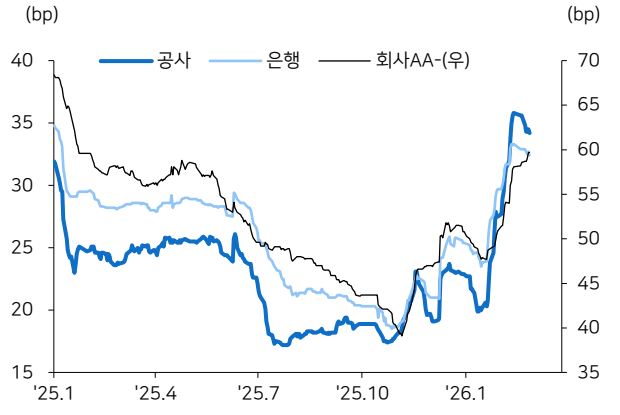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1 초장기 역전 완화와 달리 커브 스팁 압력은 제한



자료: 민평 3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2 국고3년 대비 우량등급 중심 스프레드 확대는 진정



자료: 민평 3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이벤트 및 평가(3월 3일 주간)

- 발표될 경제지표는 채권시장에 대체로 우호적일 전망. 다만 경제지표 외에도 이란 전쟁 초기 국면에서 기대 인플레와 유가 향방 주목할 필요.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 재개 가능성 및 이란의 보복수위 등으로 가늠. 한편 위험회피 분위기가 고조되는 과정에서 신용 이벤트의 추가 발생시 안전자산 선호 강화 유인

표1 **금주 이벤트 프리뷰**

일자	국가	이벤트	중요도	직전치	코멘트
3월 5일	미국	연준 베이지북	★★	—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기업의 입장과 심리 개선 여부 등을 점검. 작년말부터 경제활동 평가가 완만한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그 흐름이 유지될 경우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주장을 뒷받침하게 될 것
3월 5일	미국	4분기 단위노동비용지수	★★	-1.9% QoQ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의 변동을 연율 기준으로 측정한 지표. 견조한 생산성 증가와 낮은 단위노동비용 증가는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의 원천이 아님을 시사
3월 5일	유로존	2월 헤드라인 CPI	★★	1.7% YoY	일전에 유로국가 금리 하향 안정에 일조한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ECB의 목표범위를 하회하는 물가 흐름이 지속될 경우 통화완화 기대를 높일 수 있기 때문
3월 6일	미국	2월 비농업고용자수 증감	★★★	130K	비농업고용은 예상치 6만명을 하회하고 실업률은 4.4%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비농업고용 헤드라인은 BEP로 추정되는 5만명 내외를 상회해 양호한 상태이지만, 헬스케어/사회서비스/레저/여가 부문 제외시 마이너스임을 감안할 필요. 컨퍼런스보드의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는 응답 또한 우상향 중
3월 6일	미국	1월 소매판매	★★	0.0% MoM	미국 소비탄력의 둔화를 재확인시켜줄 전망. 기록적인 한파 영향으로 외식업 매출 등 구매활동이 위축될 개연성 존재
3월 6일	한국	2월 헤드라인 CPI	★★	2.0% YoY	전월대비 +0.46%(1월 0.4%), 전년대비 2.15%(1월 2.0%) 전망. 설 연휴 직전까지 계절적 농산물 가격 상승, 외식 및 외식 제외 서비스 가격 상승세 감안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